

-아/어 버리다

~해 버리다 — 완료와 그에 대한 감정

행동이 남김없이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냅니다. 이 표현이 실제로 더해 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반응, 즉 끝나서 후련한 마음이나 그렇게 되어 버린 아쉬움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이 ㅏ 또는 ㅑ	-아 버리다	가다 → 가 버렸어요
그 밖의 모음	-어 버리다	먹다 → 먹어 버렸어요
하다 동사	해 버리다	해 버렸어요
후련함	부담이 사라짐	다 해 버렸어요
아쉬움	무언가를 잃음	기회를 놓쳐 버렸어요
자동사도	가능	친구가 가 버렸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 규칙을 따릅니다: 먹어 버리다, 가 버리다, 해 버리다. 구어에서는 먹어 버렸어, 또는 붙여서 먹어버렸어처럼 씁니다.

행동이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. 여기에 더해 이 표현에는 감정이 담기며, 어떤 감정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후련함: 숙제를 다 해 버렸어요 (숙제를 해치웠다). 아쉬움: 동생이 케이크를 다 먹어 버렸어요.

감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실에 쓰면 어색합니다. 어제 학교에 가 버렸어요를 단순한 보고로 쓰면 이상하며, 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손실이거나 해방일 때만 자연스럽습니다.

-아/어 놓다와 달리 자동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: 친구가 가 버렸어요.

■ 예문

- 1 숙제를 다 해 버렸어요.
- 2 동생이 케이크를 다 먹어 버렸어요.
- 3 화가 나서 편지를 찢어 버렸어요.
- 4 친구가 인사도 없이 가 버렸어요.
- 5 고민하다가 그냥 사 버렸어요.
- 6 기차가 벌써 떠나 버렸어요.

■ 비교

-고 말다

둘 다 감정이 담긴 완료를 나타내지만, -고 말다는 거의 항상 의도하지 않은 원치 않는 결과를 뜻합니다. -아/어 버리다는 후련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

다 해 버렸어요. (끝나서 후련함) / 울고 말았어요. (결국 울고 말았음)

-았/었-

단순 과거는 사실을 전하고, 버리다는 그에 대한 감정을 더합니다. 버리다를 빼면 문장이 사실만 전하는 밋밋한 문장이 됩니다.

케이크를 다 먹었어요. (다 먹었음) / 다 먹어 버렸어요. (홀랑 다 먹어 버렸음)

-아/어 놓다

놓다는 나중에 쓸 결과를 남겨 두는 것이고, 버리다는 무언가를 완전히 치워 없애는 것입니다. 같은 완료된 행동에 대한 태도가 정반대입니다.

만들어 놓았어요. (만들어서 준비해 둠) / 다 써 버렸어요. (다 써 없앴)

■ 주의

- ✗ 숙제를 다 하아 버렸어요.
- 숙제를 다 해 버렸어요.
하다는 놓다, 두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버리다 앞에서 해가 됩니다.
- ✗ 어제 학교에 가 버렸어요. — 단순한 보고로 쓴 경우
- 어제 학교에 갔어요.
버리다를 쓰려면 완료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. 중립적인 사실에는 단순 과거를 쓰세요.
- ✗ 표를 미리 사 버렸어요. — ‘미리 사서 준비해 두었다’라는 뜻으로 쓴 경우
- 표를 미리 사 뒀어요.
버리다는 돌이킬 수 없음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암시합니다. 준비해 두려고 샀다는 뜻이라면 놓다나 두다를 쓰세요.